

## □ 기자회견 사전 보도자료

###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권미혁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우주당, 닷페이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의전화, 와이드블랭크프로젝트, 허니클로버레인보우, 전국다바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교조 여성위, 한국여성민우회.초등성평등연구회

## “우리에겐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 2017년 9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권미혁과 전교조 여성위, 닷페이스, 우주당,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등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기자회견의 취지는 최근 일어났던 7초등학교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하기 위함.
- 이들은 △페미니스트 선생님에 대한 공격을 멈출 것, △교육청과 교육감은 성평등 교육을 실천한 교사를 적극 보호하고 교육부는 성평등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 △네이버 스쿨톡 등 포털이 혐오 발언 등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는 등의 혐오 발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함.
- 이들 단체 및 함께 하는 개인들은 이 요구가 지켜지는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지켜지지 않을 시 개선을 위한 공동행동에 들어갈 것임

## 보도 내용

“페미니스트 선생님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9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권미혁과 전교조 여성위, 온라인 미디어 닷페이스, 우주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이 기자회견을 주최한다

최근 7초등학교 L교사가 온라인 매체 <닷페이스>와의 인터뷰에서 “페미니즘은 인권의 문제”, “여자아이들은 왜 운동장을 갖지 못하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 이후 L교사는 일부 누리꾼들의 신상털기와 허위비방에 시달렸다. 네이버 스쿨톡 등 플랫폼이 이러한 온라인 상 혐오 공격, 허위 비방을 방치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 이에 대해 주최측은 페미니스트 선생님에 대한 허위 비방과 인신 공격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책임 기관들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평등 의식은 민주 시민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이며 “성평등 교육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교육 목표”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들이 보는 공간 (네이버 스쿨톡)이 혐오의 각축장이 되는 와중에 학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상황을 방치했다”며 혐오발언, 허위비방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페미니스트 선생님에 대한 공격을 멈출 것, △교육청과 교육감은 성평등 교육을 실천한 교사를 적극 보호하고 교육청 내 성평등 전담 부서를 설치할 것, △네이버 스쿨톡 등 포털이 혐오 발언 등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는 등의 혐오 발언 대책을 세울 것 등이 있다.

기자회견은 9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실시한다. 기자회견 낭독 후 온라인 상에서 모은 학생, 학부모, 시민들의 '#우리엔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라는 주제의 의견문을 함께 공개하고, 연대단체와 개인들의 서명을 전달할 예정이다. 8월 30일부터 시작한 온라인 시민 연대 서명운동은 하룻밤새 1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우리 연대 단체와 개인들은 이 요구를 관련 기관들이 책임 있게 이행하길 바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후속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일시: 9/1(금) 오전 11시
- 장소: 국회의사당 본청 1층 건물 정론관
- 주최: 전교조 여성위 / 닷페이스 / 우주당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연대 단체: 권미혁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우주당, 닷페이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의전화, 와일드블랭크프로젝트, 허니클로버레인보우, 전국디바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교조 여성위, 한국여성민우회.초등성평등연구회
- 기자회견 및 공동행동 취재 관련 담당자
  - 김성애 (전교조 여성위원장) 010-7417-0103
  - 조소담 (닷페이스) 010-3579-5319 / showdam@dotface.kr

## □ 기자회견 전문

교육은 현재이면서 미래입니다. 지금의 학교가 미래의 사회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학생들이 다양성과 자유 안에서 뛰놀도록 해야 합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혹은 그 어떤 이유로도 꿈을 제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학생들에게 길러줘야 합니다. 여성 혹은 또 다른 소수자라는 이유로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모욕, 폭력을 당하지 않는 미래를 그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엔겐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학교 운동장은 남녀 학생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요지의 인터뷰를 한 초등 교사가 온갖 거짓 비방과 인신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평등 교육을 고민하고 연구한 교사들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 시민 교육을 위한 페미니스트 선생님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교사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일부 세력의 거짓 비방과 인신 공격이 아닌, 학교 현장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과 그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방치해왔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세계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차별과 적대의 말을 쏟아내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말들을 비판할 수 있는 사고능력을 학교에서 길러내지 못했습니다. 합리적 시민을 키워내는 데 교육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실패는 이제, 성평등 교육을 고민하는 교사들에 대한 화살로 돌아왔습니다. 혐오와 거짓 비방의 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네이버 스쿨톡 플랫폼은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보는 공간이 혐오의 각축장이 되는 와중에, 학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학교 공동체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피해는 커졌고, 거짓 비방은 불어났고, 성평등 교육을 한 교사는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교실을 경험했던 수많은 이들이 외칩니다. “우리엔겐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하다” 교사, 학부모,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귀기울여야 할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글을 함께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진정한 교육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하다 성평등 교육은 민주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공교육의 기본 목표다. 페미니스트 선생님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 둘째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은 성평등 교육을 실천한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이 상황에 대한 공식적 의견 표명과 적극적 지지 행동을 촉구한다. 교육청과 교육감은 학교 공간에서의 교사 학습권과 성평등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라 교육부는 교육청 내 성평등 전담 부서 설치하라

#### 셋째

네이버 스쿨톡 등 포털 서비스는 지금까지 온라인 상의 신상 캐기. 허위 비방. 혐오 발언을 방치하고 있다. 포털은 혐오를 더 이상 사업에 이용해선 안 된다. 혐오 발언 등을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는 혐오 발언 대책을 세워라.

### □ ‘우리에게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하다’ 온라인 시민 청원 내용 첨부

페미니즘이 학교에 필요한 이유를 담은 온라인 시민 청원 내용을 첨부합니다

#우리에게\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 시민들의 목소리 <http://wouldyouparty.org/events/21>

| 개인 연대 서명 페이지 \*<http://wouldyouparty.org/petitions/54>

### □ 참고할 만한 기사

- 초등 성평등교육에 혐오 민원 봇물... 교육청은 “그게 시민 정서” 방관 |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116727>

- #우리에게\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8505.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8505.html)

- ‘페미니즘 지지’ 이유로 공격 받은 초등학교 교사들 “페미니즘엔 잘못이 없다”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1316270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131627001)